



세 선지자의 간본문적 대화: 계 1장을 중심으로

*An Intertextual Dialogue among Three Prophets
centered on Revelation 1*

송영목¹⁾ (고산대학교 신학과 교수)

목차

들어가면서	256
1. 요한계시록 1장의 간략한 주석	259
2. 요한계시록의 구약 간본문	267
3. 요한계시록 1장과 에스겔 1장의 간본문성	269
4. 요한계시록 1장과 다니엘서의 간본문성	274
4.1. 다니엘 7장	274
4.2. 다니엘 10장	280
나오면서	284

요약

세 선지자의 간본문적 대화: 계 1장을 중심으로

이 글은 요한계시록 1장을 중심으로 세 선지자(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사도 요한)의 상호작용을 간본문성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다.

계시록 해석의 열쇠를 종교사학파처럼 이방 신화나 신비 종교에서 찾을 수 없다. 오히려 구약에서 찾아야 한다. 요한은 계시록의 서두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완결적 사역의 관점에서 구약 바라보면서 과거론적 해석을 지향한다. 계 1장과 단 7장과 10장 그리고 겔 1장 사이의 연속성이 강하다. 그 중심에는 연결고리이신 그리스도가 계신다. 세 선지자의 간본문적 대화중에서 불연속성 혹은 변형이 발생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발생한 구속사의 '확대-상승'으로 인한 것이다. 이것은 요한이 견지한 '그리스도 완결적 해석'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의 완결된 구원의 은덕을 입은 요한의 1차 독자들과 신약의 전체 교회의 유익으로 나타난다.

겔 1장은 포로 중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우주의 통치자는 하나님임을 보좌 환상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위로한다. 마찬가지로, 요한은 필박 중에 있는 그의 독자들을 보좌 위의 언약에 신실하신 삼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비슷한 환상을 통해서 설명한다. 단 7장에서 미래에 성취될 것으로 본 인자의 우주적인 통치 예언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루고 계심을 강조한다. 그리고 다니엘과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의 압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역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확신했다.

이 연구 결과에 도달하기 위하여 다음 네 가지 요소에 집중할 것이다: (1) 요한계시록 1장의 간략한 주석, (2) 요한계시록의 구약 간본문, (3) 요한계시록 1장과 에스겔 1장의 간본문성, 그리고 (4) 요한계시록 1장과 다니엘 7장과 10장의 간본문성.

주제어:

요한계시록, 에스겔, 다니엘, 그리스도 완결적 해석, 간본문성.

An Intertextual Dialogue among Three Prophets centered on Revelation 1

Prof. Dr. Young-Mog Song

This paper probes the interaction among three prophets (Ezekiel, Daniel and John the Apostle) in terms of intertextuality centered on the first chapter of the Book of Revelation. It is unreasonable to find the key for interpreting Revelation from pagan myth and mysterious religion like the school of religion history has tried. Instead, the key is found in the Old Testament. From the beginning of Revelation, the Apostle John tries to look at the OT in the Christotelic light in order to set the preteristic interpretation. In fact, there is a continuity among Revelation 1, Ezekiel 1, Daniel 7 and 10. Christ is the link for this continuity. The discontinuity or transformation in this intertextual dialogue is due to the expansion and escalation in revelation history based on the Christ event. In other words, this discontinuity or transformation is caused by John's Christotelic interpretation. In effect, this becomes the benefit for the NT Church who receives the salvific grace from the fulfilled redemption of Christ.

The prophet Ezekiel encouraged the Israelites during the Babylonian Exile by showing the throne vision in which Yahweh rules the nations. In a similar fashion, John explains the throne vision to console his readers who were being persecuted both from the apostate

Jews and from the pagan Roman Empire. These two prophets were convinced that it is the covenantal God who governs his people. In Daniel chapter 7, Daniel prophesied the futuristic reign of the Son of Man, whose ruling power is from God the Father. For John the Apostle, this futuristic prophecy has been fulfilled in the person and works of Christ.

To reach this conclusion, attention will be given to the following: (1) A brief exegesis of Revelation 1, (2) The OT intertexts in the Book of Revelation, (3) The intertextuality between Revelation 1 and Ezekiel 1, and (4) The intertextuality between Revelation 1 and Daniel 7 and 10.

Key Words

Revelation, Ezekiel, Daniel, Christotelic interpretation, Intertextuality

들어가면서

요한계시록을 그레코-로마의 맥락 중에서 특별히 '도미티안의 황제숭배 강요'에 저항하는 종교-정치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여전히 시도되고 있다.²⁾ 그 결과 계시록을 해방신학이나 탈식민주의적 입장에서 보려는 시도로 이어진다. 이런 시도를 하는 이들은 계시록이 도미티안 때 저술되었는지,³⁾ 정치적인 해석이 구원계시사적 해석보다 더 우선적인 것인지 스스로 답해야 한다. 계시록을 상징과 구조의 직접적인 배경인 구약의 맥락에서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구약을 사용했을까? 했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은 신약의 선지자로서 구약 선지서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5가지 증거로 증명된다:⁴⁾ (1) 'profhetei-' 단어와 관련된 용어의 사용(계 1:3; 2:20; 10:11; 11:6; 19:10; 22:7, 9, 10, 18, 19), (2) 요한의 선지자로서의 사명(계 1:10-20; 10:8-11), (3) 선지자적 말씀의 형식적 요소(예, 1인칭으로 전달된 말씀과 상징적인 예언적

행위, 계 10:8-11). (4) 요한의 예언의 절대적인 권위(계 1:1-2, 10-11; 22:18-19). 요한의 선지자로서의 권위는 그가 들은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에 의해서 강화되는데, 선지자 모세도 시내산에서 여호와와 현현 시에 그와 유사한 소리를 들었다(출 19:16, 19-20). 그리고 (5) '책에 기록하라'라는 명령(grayon, 계 1:19)은 여호와께서 구약 선지자 종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떠올리는데, 주로 심판의 맥락이 두드러진다(출 17:14; 34:27; 사 8:1; 30:8; 렘 37:2; 39:44; 43:2; 합 2:2). 유대인 출신 기독교 예언자인 요한의 신학적이며 종말론적인 개념들은 그가 하나님의 계시의 우선적인 좌소로 분명히 여겼던 구약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⁵⁾ 사실 계시록의 묵시적인 특성들이 평가절하 될 수 없더라도, 요한이 사용한 중요한 예언 묵시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구약에 제한된다.

현대 학계에서 무시되는 것 중에서 하나는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는 그가 본 환상이었다는 점이다(참고, 계 1:2). 계시록과 구약의 간본문성을 넘어, 요한이 주로 이방 신화와 점성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 가설적 주장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떠안는다.⁶⁾ 이들은 최근에 SBS가 방영한 '신의 길, 인간의 길'처럼 비교종교학이나 종교사학파적 해석에 근거하여

1) 고신대학교 신학과(B. A.) 및 신학대학원(M. Div.)을 거쳐, 남아공 포츨스트롬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공부(Th.M.)한 후, 요하네스버그대학교에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Ph. D.). 현재 고신대학교 신학과 전임강사로 사역하고 있으며, 쓴 책으로는 「복음서의 계시사적 메시지: 마태-마가」, 「복음서의 계시사적 메시지: 누가-요한」, 「신약 해석학」,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요한계시록의 신학」, 「신약신학」, 「헬라어강독의 원리와 실제」가 있다.

ymsongrau@hanmail.net

2) 유은결, "요한계시록의 황제제의: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15, 2008, 498.

3) 가장 최근에 Woodman은 계시록의 저작 연대를 다수의 의견인 도미티안 때가 아니라, 베스파시아의 통치 초기로 본다. 참고. Woodman, S., *The Book of Revelation. SCM Core Text*, London: SCM Press. 2008, 16.

4) Beale, G.K. & McDonough, S.M., "Revelation", Beale, G.K. & Carson, D.A., ed,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7, 1091.

5) Fekkes, J., *Isaiah and Prophetic Traditions in the Book of Revelation: Visionary Antecedents and Their Developmen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38.

6) 'Context Group'의 문화인류학적 해석을 의존한 이달, "요한계시록의 점성학적 해석", 「신약논단」 15, 2008, 187. Chilton, D., *The Days of Vengeance: an Exposi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Tyler: Dominion Press. 1990, 307. 그리고 참고. VanGemeren, W.A., *Interpreting the Prophetic Word*(김의원, 이명철 옮김, 「예언서 연구」, 서울: 엠마오, 1990), 604. 같은 맥락에서 Roloff는 계 12장을 계시록 전체에서 '신화'를 의의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한 유일한 장이라고 본다. 따라서 점성술이라는 고대의 신화와 하늘의 신들 사이의 전투라는 신화를 요한이 사용한 것으로 본다. 참고. Roloff, J., *The*

강압적으로 계시록을 신화적 책으로 만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신의 길, 인간의 길'이 증명하듯이, 구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무시하면 예수님은 신비종교나 영지주의 분파의 혁명가나 구원자 정도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⁷⁾ 요한이 이방 신화적 자료를 사용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계시록과 이방 신화 사이의 간본문성으로 인해, 참된 세상의 구주는 오직 그리스도뿐임을 가르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계시록과 이방 신화에 등장하는 '전투 신화' (combat myth)와의 간본문성을 통해서, 요한은 이방인들이 기대하는 승리는 예수 그

Revelation of John, Minneapolis: Fortress, 1993, 142-143.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적인 추론이며, 요한이 이런 고대의 신화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참고. Van Groningen, G., *Messianic Revelation in the Old Testament* (유재원, 류호준 옮김, 「구약의 메시아 사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935.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맞닿음에서 본 환상과 구약이 가장 중요한 자료였다. 하지만 계시록의 구조 및 주제가 이방 신화와 유대 문헌에서 볼 수 있는 유사성조차 부정할 필요는 없다. 이방의 전투신화(pagan combat myth)처럼, 신구약 중간기의 몇몇 유대 문헌들은 신적 전사에 의해서 수행되는 전투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예를 들어, BC 2세기 초로 추정되는 시락과 제 1 에녹서는 신적 전사의 전투 주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a) 위협(Threat; 1 에녹서 91:5-9)
- (b) 전투 및 대적을 물리침(Combat-victory over enemies; 1 에녹서 1:3-9; 5:5-9; 91:5-9; 99:3-10; 100:1-6; 시락 35:22-24)
- (c) 승리의 환호(Victory shout; 1 에녹서 1:3-9; 10:11-11:2; 시락 35:25)
- (d) 이스라엘의 구원(Salvation of the nation; 1 에녹서 1:3-9; 10:11-11:2; 25:3-6; 99:3-10; 100:1-6; 시락 35:25-26)
- (e) 우주적 통치(Universal reign; 1 에녹서 1:3-9; 10:11-11:2; 91:5-9; 99:3-10; 100:1-6; 시락 36:1)
- (f) 성전으로 행진(Procession to the temple; 1 에녹서 10:11-11:2; 25:3-6; 시락 36:13, 16-19)
- (g) 만찬(Banquet; 1 에녹서 25:3-6). 참고. Argall, R.A., *I Enoch and Sirach: a Comparative Literary and Conceptual Analysis of the Themes of Revelation, Creation and Judgment*, Atlanta: Scholars Press, 1995, 168, 212.

7) 참고. Willimon, W.H. & Lischer, R., *Concise Encyclopedia of Preaching* (이승진 옮김, 「설교학 사전」, 서울: CLC, 2003), 70.

리스도의 승리에서만 실현 가능함을 가르쳐 준다. 이 글에서는 계시록 전체 이해의 서론적인 계 1장을 중심으로 요한과 에스겔과 다니엘 사이의 간본문성을 찾아서, 계시록 1장 이해를 더 분명하게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계시록 이해에 있어서 계 1장부터 해석가 사이에 이견이 많고, 오해가 많았기 때문이다.

1. 요한계시록 1장의 간략한 주석

요한계시록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VApoka,luyij Vthsou/ Cristou/)이다(계 1:1). 계 1:1은 avpokalu,ptw가 5번, a] dei/ gene,sqai("what must come to pass")가 3번, shmai,nw(to signify)가 2번 나타나는 단 2:28-30, 45-47의 구조를 따른다. 다니엘의 먼 미래의 말세 개념을 요한이 의도적으로 evn ta,cei(imminent time of fulfillment)로 치환함으로써 자신의 시대에 실현된 종말을 강조한다. 단 2:45의 shmai,nw의 사용은 느부갓네살의 꿈이 '상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지시한다. 요한이 계시록의 제목과 표제적 진술에 있어서 이 단 2장의 구절에 호소하는 것은 상징적인 환상이 계시록 전체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기틀(warp and woof)로 역할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계시록의 보좌환상, 7인, 7나팔, 7대접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⁸⁾

'반드시 속히 될 일들' (a] dei/ gene,sqai evn ta,cei)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날 긴박한 일을 가리킨다(참고. 단 2:28-29). 이 표현은 '결단의 절박함'이 아니라, 계 1:1과 더불어 계시

8) Beale & McDonough, "Revelation", 1088.

록 전체의 인클루시오(inclusio)를 형성하는 계 22:6에서도(a] dei/ gene, sqai evn ta, cei) 임박한 사건에 대한 강한 기대를 의미한다.⁹⁾ 계 1:1에서 밝히는 시간의 긴박함을 고려해 볼 때 과거론적 해석과 더불어 계시록의 전통적인 해석으로 여겨지는 미래론적, 이상주의적, 그리고 교회-세상 역사론적 해석은 '석의'로서 적합하지 않고 '적용'으로 보아야 한다.

계시록은 예언이며, 이 예언의 말씀을 예배 중에 크게 읽는 한 사람과 듣는 자들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되다(계 1:3). 왜냐하면 1:1에서 이미 밝힌 바로 그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이다(o` ga.r kairo.j evggju.j). 계시록의 예언은 곧 이루어질 내용이다.¹⁰⁾ 계시록은 소아시아의 7교회의 회람 서신으로서 예배 중에 사용되었다.

계 1:45에서 우리는 아주 멋지고 완벽한 '강복선언문'을 접한다."¹¹⁾ 계 1:45에서 요한은 3위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을 말한

9) 참고. 이광진, 「실교자를 위한 요한계시록 주석」, 서울: 크리스찬 헤럴드, 2004, 252.

10) 계 1:3에서 '감람산 강화' 와의 간본문성을 발견할 수 있다(참고. dei/ ga.r tau/ta gene, sqai prw/ton, 마 24:6; 눅 21:9). 계시록의 중요한 신약 관련 구절들만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계 1:5-골 1:18; 계 1:7-마 24:30; 계 1:16-마 17:2; 계 2:10-약 1:12; 계 2:20-24-행 15:28; 계 3:3-마 24:42; 계 3:5-마 10:32; 계 6-마 24; 막 13; 눅 21; 계 12:9-눅 10:18; 계 13:9-벤전 1:19-20; 계 16:19-벤전 5:13; 계 17:14-딤후전 6:15; 계 18:4-고후 6:17; 엡 5:11; 계 18:24-눅 11:50; 계 21:4-5; 고후 5:17; 계 22:21-엡 6:24. 주로 계시록의 관련 신약 본문은 감람산 강화,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으로서 AD 30-70년 사이의 일을 다루고 있는 본문들이다. 이것 역시 계시록의 1세기 문맥적 해석 즉 과거론적 해석을 지지한다.

11) '복을 빈다'는 뜻의 '축도(祝禱)보다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선언한다"는 뜻의 '강복선언'이 옳다. Wilson은 계 1:4-5를 복의 선포 대신 '송영'으로 보고, 계 22:21만 복의 선포로 본다. 하지만 계시록의 예배적 배경에서 볼 때, 계 1:4-5는 복의 선포에 적합하다. Wilson, M., *Charts on the Book of Revelation*, Grand Rapids: Kregel, 2007, 107.

다. 이 강복선언문에 나타난 성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o` evrco, menoj)으로, 성령 하나님은 '하늘 보좌 앞에 계시는 일곱 영'으로(tw/n e`pta. pneuma, tw'n,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 참고. 계 3:1; 4:5; 5:6), 성자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이시다. 전통적인 순서인 성부-성자-성령 대신 성부-성령-성자의 순서가 나타난다. 아마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를 연결시키는 사역을 해서 그럴 것이다. 아니면 계 45장이 유대기독교적 사상에 기초해 있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은 분리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설명은 계 45장의 환상에 인접해서 따라오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의 부분을 그리스도와 가깝게 두는 것이 자연스러워서 성령과 자리를 바꾼 것일 수도 있다.¹²⁾

다른 설득력 있는 설명은 천상의 성전의 그림자인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염두에 둔 예전적인 순서를 따른다는 것이다. 지성소의 법제는 다름 아닌 성부의 보좌(발등상)이며, 어둠을 밝히는 성소의 7가지를 가진 등대는 온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일곱 영이신 성령을 상징하고, 뜰의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기에 성부-성령-성자의 순서를 따르고 있을 지도 모른다.¹³⁾ 여기서 다시 한번 삼위 하나님의 상호작용을 본다. 바로 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요한은 기도한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기에, 5-6절에 나오는 성자 예수님에 관한 것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12) 참고. 홍창표, 「요한계시록 해설, 제 1권」, 서울: 크리스찬북, 1999, 148.

13) Chilton, *The Days of Vengeance*, 58.

(1)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 (o` ma,rtuj)이다.¹⁴⁾ 주님은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 성부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죽기까지 증거 하신 예수님이시다. 바로 이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의 열매를 지금은 일곱 영이신 성령께서 온 세계에 적용하신다. 그 이유로 비록 위격은 다르지만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구속의 일을 하신다. 그 결과 성도는 죄에서 해방된 ‘출애굽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계 1:5b-6).¹⁵⁾

(2)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o` prwto,tokoj tw/n nekrw/n)이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에, 주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다(참고. 엠 2:5).

14) 계시록에 ‘Vhsoufj’ 라는 표현이 14회 등장한다(계 1:1, 2, 5, 9[2회], 12:17; 14:12; 17:6; 19:10[2회], 20:4; 22:16, 20, 21). 요한이 이 표현을 14회 사용한 것은 아마도 의도적인 것 같다. 하지만 예수님이 ‘증인’ 이시기에, (완전을 상징하는) 7x2(증인의 숫자)의 방식을 염두에 두었는지는 의문이다. Moyise, S., *Word Frequencies in the Book of Revelation, Andrews University Seminary Studies*, 43(2), 2005, 294.

15) Tavo, F., *Woman, Mother and Bride: an Exegetical Investigation into the "Ecclesial" Notions of the Apocalypse*, Leuven: Peeters, 2007, 70. 요한은 수신자를 ‘출애굽 공동체’ 라는 신학적 안목으로 이해한다. 계 1장에서 ‘출애굽 주제’ 는 (1) 계 1:4의 성부의 호칭이 출 3:14에서 모세가 불불은 가시떨기에서 들은 하나님의 호칭 (evgw, eivmi o` w;n, hy<+h.a.(rv<âa] hy<β h.a.)과 병행을 이루는 사실과 (2) 계 1:5의 어린양 예수님의 피로 성도가 해방된 것이 출 12장의 유월절의 어린양의 피와 병행을 이루는 것, 그리고 (3) 계 1:6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출 19:6(basi,leion i`era,teuma kai. e;qnoj a[gion, vAd+q` yAg w> ~ynI β h]Ko tk,l,?m.m.)과 병행을 이룬다는 점에서 분명해 진다. “마치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여호와의 특별한 민족과 나라가 된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끌어주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온 인류 가운데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선택받았음은 새 왕국 즉 새 이스라엘로 인도해 준다.” 보라. Dumbrell, W.J., *The End of the Beginning*(장세훈 옮김, 『새 언약과 창조』, 서울: CLC, 2003), 203. 이 모든 것은 참 왕이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그 은덕에 성도가 은혜로 초대되어 참여함으로 이루어진다. 참고. Tavo, *Woman, Mother and Bride*, 70, 74. 계시록의 출애굽 주제를 위해서는 필자의 아래의 글을 참고하라. Song, Y.M., “Exodus Theme in the Book of Revelation 12-13”, Paper read at SBL International Meeting, 2008. 7.

(3)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 (o` a;rcwn tw/n basile,wn th/j gh/j)이다. 주님은 부활-승천하심으로 확실하게 온 땅의 통치자로서 높아지셨다.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계신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통치자)라는 말은 나중에 나오는 예수님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 (ku,rioj kuri,wn evsti.n kai. basileu.j basile,wn, 계 17:14; 19:16)이라는 칭호를 미리 내다본다. 이런 칭호는 예수님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밝힌다.

주석가의 의견은 계 1:7의 해석에서 다양하게 갈라진다. 이 구절은 계시록 전체의 해석을 위해 중요하다.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VIdou. e;rcetai meta. tw/n nefelw/n). 이것은 구약에서 빌려온 표현인데, 미래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의 최종 재림(the Parousia)을 의미하기보다는, 요한의 독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영광 가운데 통치자로서 예수님이 오심을 가리킨다(보라. ivdou. ku,rioj ka,qhtai evpi. nefe,lhj kou,fhj; 사 19:1; 단 7:13; 참고. 마 10:23; 24:30).¹⁶⁾ 성경에서 ‘구름’ 은 종종 하나님의 현현(나타남, 임재)의 상징이다(시 104:3; 사 19:1). 그렇다고 주님의 최종 파루시아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예수님)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pa/sai ai` fulai. th/j gh/j)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계 1:7).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분으로 영적으로 오실 것이므로, 주님을 처형했던 사람들(찌른 자들)과 ‘땅’(gh/, ‘땅’은 일차적으로 팔레스틴을, 포괄적으로

16) 참고. Chilton, *The Days of Vengeance*, 64. 그리고 Beale & McDonough, “Revelation”, 1091

는 디아스포라의 유대인 전체를 가리킴. 참고. 눅 18:8; 계 5:5; 단 7:13; 숙 12:10)의 모든 족속 즉 유대인들이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애곡한다는 의미이다. 대다수의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보면서 예수님의 미래적 재림으로 해석하지만, 이 구절에서부터 (부분적)과거론적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성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VEgw, eivmi to. a;lfa kai. to. w=),¹⁷⁾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으며, 지금도 오시는 분이요(o`evrco,menoj), 전능한 분이시다(8절).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밧모섬에 유배되어 있다(9절). 요한은 '주의 날' (evn th/l kuriakh/ h`me,ral)에 '성령에 감동하여' (evn pneu,mati)¹⁸⁾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들었다(10절). 이 소리를 듣자, 요한은 승귀하신 예수님을 보려고 돌이킨다(12절).

밧모섬에서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 성전 제사 그리고 다니엘서의 설명과 유사하다. 계 1:13-15는 예수님의 모습을, 16-20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다룬다.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차례대로 살펴보자:¹⁹⁾

17) a;lfa와 w=는 계시록에만 등장하는 hapax legomena이다(계 1:8; 21:6; 22:13). VEgw, eivmi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밝힐 때 종종 사용하신 표현이다(참고. 요 6:35, 41, 48, 51; 8:12, 24, 28; 9:5; 10:7, 9, 11, 14; 11:25; 13:19; 14:6; 15:1, 5). 보라. Wilson, *Charts on the Book of Revelation*, 22, 38.

18) 한글 개역성경은 '성령에 감동하여'로, 바른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라고 번역하는데,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성령 안에서'이다.

19) 참고. Chilton, *The Days of Vengeance*, 72-73.

13절- 인자 같은 이(o[moion ui`o.n avnqrw,pou)가 밧에 끌리는 옷(podh,rhj)을²⁰⁾ 입으심: 대제사장의 공식 복장을 입으신 것처럼 위엄 있으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단 10:5).

14절- 머리카락은 양털과 눈 같음: 옛적부터 계신 여호와(the Ancient of Days)처럼 거룩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단 7:9).

14절- 눈은 불꽃같고: 모든 것을 보고 감찰하시는 예수님(단 10:6b).

15절- 밧은 풀무에 단련한 주석(calkoli,banon)같고²¹⁾: 대적을 물리치시고 밧고 계신 승리의 예수님(단 10:6c).

15절-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웅장하신 말씀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겔 1:26; 43:2; 단 10:6d).

16절- 오른 손에 일곱별이 있고: 전능하고 주권적인 힘으로 교회의 사역자를 붙드시는 예수님. 로마제국의 동전에 일곱별이 종종 등장하는데 황제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손안에 일곱별이 있다고 밝힘으로써, 요한은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교회의 목회자를 붙들고 있음을 강조한다.

16절- 입에서 양날 선 같이 나오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더 나아가 말씀으로 정복하시는 예수님이시다. 말씀은 심판적 측면도 가진다(계 2:16).

16절- 해가 힘 있게 비취는 것 같은 얼굴: 영광의 광채로 충만하신 예수님(단 10:6a). 성육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적 영광을 충만히 가시화하신 분이다.

20절-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금 촛대 즉 금과 같이 영광스런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메시아로서 주님이 교회와 임마누엘

20) Hapax legomenon이다. Wilson, *Charts on the Book of Revelation*, 22.

21) Hapax legomenon이다. Wilson, *Charts on the Book of Revelation*, 22.

하시겠다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마 28:20; 요 14:16). 구약 성소에 는 촛대가 하나뿐이었으나, 요한은 7개의 촛대를 본다. 이제 교회-하나 님 나라는 많이 흩어지고 성장하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 요 한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순회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들과 함께 계신다.

실제로 계시록의 수신자인 7교회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리적으로 촛대 모양처럼 분포되어 있다. 계 1:20에 의하면, 7촛대는 죄악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7교회를 상징한다. 7은 전체 혹은 완전의 상징이므로 모든 교회를 가리킨다.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임마누엘이심을 의미한다. 일곱별은 7교회의 천사 혹은 사역자를 가리킨다. 아마 소아시아 7교회가 선명한 대표적인 사역자를 가리키는 것 같다. 아마도 이들은 밤모 섬에 투옥된 요한을 방문했을 것이고, 서신을 받아서 에베소교회를 필두로 해서 소아시아에 회람시켰을 것이다.

계시록의 전체 이해와 구조를 밝히는데 중요한 계 1:19의 '내가 본 것들(a] ei=dej)과 지금 있는 일들(a] eivsi.n)과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a] me,llei gene,sqai meta. tau/ta)'은 무엇인가? 계 1:19는 단 2:28-29와 45절에서 빌려와서 계시록에 나타난 환상의 '연대기적 순서'를 가리키기보다는, '세대들의 절정적 종말'을 강조하는 요한의 의도적인 종말론적 표현인가?²³⁾ '내가 본 것들, 지금 있는 일들,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계 1:4, 8)라는 표현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면서, 삼위 하나님 사이

22) Beale, G.K., *John's Use of the Old Testament in Revelation*,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165-172.

의 정확한 구분이 어렵듯이, 시간적 구분도 정확히 구분할 수 없다고 보는 이도 있다.²³⁾ 하지만 요한은 삼위 하나님을 구별된 호칭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요한이 이 시간적 표현과 하나님의 호칭 사이의 병행을 의도했는지는 의문이다. 이것을 연대기적 순서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내가 본 것들'은 계 1장의 개시 환상을, '지금 있는 일들'은 계 2-3장의 내용을,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은 가깝게는 계 4장 이후의 요한 당시 혹은 직후의 미래적 일과 멀게는 주님의 최종 파루시아시의 일들을 가리킨다.²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교회를 책임지시는 능력과 부활의 예수님, 교회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능력의 말씀을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 교회의 사역자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복음과 교회의 대적을 물리치고 밝고 계시는 예수님을 특히 박해 중인 교회는 신앙해야 한다.

2. 요한계시록의 구약 간본문

계시록과 구약의 관련 구절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계 1장과 구약의 간본문은 다음과 같다:

계 1:1-단 2:28, 29, 45.

계 1:4-출 3:14; 사 41:4.

23) Woodman, *The Book of Revelation*, 68.

24) 참고. Du Rand, J.A., *Die A-Z van Openbaring: 'n Allesomvattende Perspektief op die Boek Openbaring*, Vereeniging: CUM, 2007, 142.

계 1:5-시 89:27; 130:8; 사 40:2.
 계 1:6-출 19:6; 사 61:6.
 계 1:7-단 7:13; 숙 12:10, 12, 14.
 계 1:8-출 3:14; 사 41:4; 암 3:13; 4:13.
 계 1:13-겔 9:2, 11; 단 7:13; 10:5.
 계 1:14-단 7:9, 계 1:14-15-단 10:6.
 계 1:15-겔 1:24; 43:2.
 계 1:16-사 49:2.
 계 1:17-사 44:6; 48:12.
 계 1:19-사 48:6; 단 2:28-28, 45.²⁵⁾

계 2장-구약 중 생명나무, 하나님의 낙원, 발람, 발락, 이세벨,
 철장 등의 표현.

계 3장(생명책, 다윗의 열쇠)-출 32:33; 시 69:28; 말 3:16; 사 22:22.
 계 4장(하늘 보좌, 4생물)-사 6:1; 겔 1:10, 26-28; 10:14.
 계 5장(책, 유다지파의 사자)-겔 2:9; 숙 5:1-3; 창 49:9; 사 11:10.
 계 6장(말과 말 탄 자들)-시 45:3-4; 숙 1:8; 6:3.
 계 7장(이마에 인침을 받은 종들과 그들의 기쁨)-겔 9:4;
 사 49:10; 렘 2:13; 31:16; 겔 34:23.
 계 8-9장(십판의 나팔)-출 7장 이하의 10재앙들.
 계 10장(천사의 증거와 작은 책)-단 12:7; 겔 2:9; 3:4.
 계 11장(척량하는 자와 두 증인)-겔 40:3; 숙 2:1이하; 4:2이하.
 계 12장(여인, 아이, 용, 천사 미가엘)-창 3:15; 단 10:13, 21; 12:1.
 계 13장(바다에서 나온 짐승)-단 2:31; 7:2.

25) 참고. Wilson, *Charts on the Book of Revelation*, 25.

계 14장(흰 구름, 인자와 같은 이, 포도주틀)-단 7:13; 10:16; 사 63:3.
 계 15장(모세의 노래)-출 15장.
 계 16장(아마겟돈)-삿 5; 대하 35.
 계 17-19장(음녀 바벨론의 멸망, 새들을 부름)-사 13; 14; 21; 46; 47;
 48; 렘 25; 50; 51; 단 2; 7; 합 3; 겔 27; 39:17-20.
 계 20장(곡과 마곡, 십판의 책)-창 10:2; 겔 38-39; 단 7:10-12:1;
 시 69:28.
 계 21장(신천지, 새 예루살렘)-사 65:17이하; 66:22이하;
 겔 48:30이하.
 계 22장(생명수 강, 생명나무)-창 2; 겔 47:1-12.²⁶⁾

이상의 간본문이 밝히는 바는 계시록의 메시지는 창세기와 출애
 곁기 그리고 선지서와 관련이 크다는 사실이다. 요한은 수신자를 위로
 하기 위해서 그들이 종말론적으로 경험하는 새 창조와 새 출애굽을
 선지자적 이미지로 설명한다.

3. 요한계시록 1장과 에스겔 1장의 간본문성²⁷⁾

포로기에 옛 성전의 종말과 변혁된 세계를 상징하는 보다 영광스
 러운 새 성전의 시작을 예고하면서, 옛 시대와 새 시대 사이의 구속사
 의 중요한 시점에서 있었던 에스겔의 선지자로서의 소명과 책 전체

26) 보라. Hendriksen, W., *More Than Conquerors: an Interpreta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Grand Rapids: Baker, 1975, 61-62.

27) 계시록과 에스겔의 간본문성을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참고. Vogelsang, J.M., *The Interpretation of Ezekiel in the Book of Revelation*, Ann Arbor: UMI, 1985, 5-6):

내용의 윤곽을 보여주는 에스겔 1장에는 신기한 환상이 등장한다.²⁸⁾ 1절의 '하늘이 열리고'는 절망 중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 소망이 되심을 강조한다. 이 환상은 바벨론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서 흐르도록 인공적으로 만든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요 제사장인 에스겔이 본 환상이다. 환상을 본 장소가 그발 강가인 것은 아마도 이 강 근처는 수운과 농사 혹은(신 바벨론 건설을 위한) 큰 공사에 적합한 장소이므로, 에스겔은 포로 신분으로 노동을 하던 중에 이 환상을 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참고, 시 137:1-2), 겔 1:1에 의하면 약 30세 정도 된 에스겔은 똑 같은 포로 신분으로 고생하면서 동포에게 예언을 했기에 설득력과 호소력은 더욱 강력했을 것이다.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폭풍과 큰 구름이 북쪽에서 막 몰려온다(4절).²⁹⁾ 그런데 폭풍과 구름 사이에 불이 번쩍 번쩍 거린다(4절). 이 불 속에는 4생물이 보이는데 사람 모양이다(5절). 각 생물을 자세히 보니, 머리는 하나인데 얼굴은 4개다(6절). 정면은 사람 얼굴, 오른 편은 사자의 얼굴, 왼편은 소의 얼굴, 뒷면은 독수리의 얼굴이다(10절). 그리고 이 생

물은 4날개를 가지고 있다(6절).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처럼 생긴 것이 있다(8절). 두 날개로는 다른 생물의 날개와 연결하고, 다른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린다(11절). 그러므로 이 4생물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날개를 연결하여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생물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모양인데 밧나고, 다리는 쪽 빠졌다(7절). 이 생물은 광속으로 움직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데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14절). 그리고 각 생물 주위에는 엄청나게 큰 바퀴가 하나씩 있는데 바퀴는 보석으로 만든 것 같다(16절). 그런데 이 바퀴 둘레에는 번쩍이는 눈들이 많이 박혀 있었다(18절). 이렇게 많은 눈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상징한다. 그래서 생물이 움직이면 바퀴도 움직이고 생물이 날면 바퀴도 같이 날았다(19절). 그런데 이 4생물 위에는 수정같이 빛나는 판(platform)이 있었다(22절). 이 수정 판은 각 생물들의 날개 끝에 닿아 있었다. 4생물이 날개 치며 날아갈 때면 마치 바닷물이 철썩이는 것처럼 큰 파도소리 혹은 하나님께서 호령하시는 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24절). 4생물이 정지해 있더라도 머리 위의 수정판에서 큰 음성이 여전히 들렸다. 수정 판 위에는 사파이어로 만든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사람 같은 모양'의 한 분이 앉아 있다(26절). 그분의 허리 윗부분은 백금처럼 온통 불꽃을 발하고 있었고 허리 이하도 활활 타오르는 불꽃 모양이다(27절). 보좌 위의 하나님의 모습은 온통 빛

에스겔

포로 중의 에스겔이 환상을 봄(겔 1)

유대인을 향한 메시지(겔 2-24)

열방에 내려질 심판(겔 25-32)

메시아 왕국(겔 33-37)

곡의 공격(겔 38-39)

마지막 영광의 환상과 구원받은 자의 평안,

그리고 여호와 삼마(겔 40-48)

계시록

포로 중의 요한이 환상을 봄(계 1)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계 2-3)

하나님의 환상(계 4-5)에 의해 인도되는 심판 시리즈(계 6-19)

메시아 왕국(계 20:1-6)

곡과 마곡의 공격과 최후 심판(계 20:7-10, 11-15)

마지막 영광의 환상과 새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은 자의 평안과

장막 삼으심(계 21-22)

28) 참고, VanGemeren, *Interpreting the Prophetic Word*, 563.29) '강력한 폭풍' (hr' # ['s. x:Wr', pneu/ma evxai/ron, 겔 1:4)은 창 1:2의 하나님의 영 (~yhi? [a/ x:Wr#>)이 수면 위를 순행하실 때의 창조를 연상시킨다. 그리고 4생물(겔 1:5)과 창 1:24, 28의 생물들, 그리고 겔 1:25의 궁창과 창 1:25의 궁창, 그리고 겔 1:28의 무지개와 창 9:13-16의 무지개 사이의 간본문을 통해서, 에스겔은 겔 1장에서부터 '창조-반창조-재창조' 주제를 통해서 포로 중의 이스라엘은 마치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와 입장 혹은 홍수를 견뎌 노아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듯하다. 결국 포로 귀환은 이스라엘의 재창조 사건이다. 보라, Duguid, I.M., *Ezekiel.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윤명훈, 임미영 옮김, 『에스겔. NIV 적용주석』,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3), 75. 그리고 Dumbrell, *The End of the Beginning*, 245.

난 광채에 쌓여 있다. 그런데 이 광채는 비온 뒤에 나오는 무지개의 모양이다(28절). 에스겔이 이 엄청난 환상을 보자 그 앞에 엎드러지고 만다(28절).

이 환상에 나오는 4생물은 '사람, 독수리, 사자, 소'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각 영역의 대표적인 동물이기에, 다름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상징한다(참고, 계 4:7).³⁰⁾ 그리고 각 생물의 4날개 중 위의 두개는 다른 생물과 연결하기 위해서 높이 들려있고, 다른 두 날개는 자기 몸을 가리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것은 지성소에 있던 법궤 뚜껑 위의 두 그룹을 연상시킨다. 생물 곁에 있는 바퀴는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전차를 상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의 바퀴도 상징한다. 우리 인생의 걸음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도한다는 의미에서 바퀴에는 무수히 많은 눈들이 박혀 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4생물과 함께 움직이는 바퀴 위에는 수정판이 있고, 그 위 보좌에는 빛난 영광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보좌가 모든 피조물 위에 있다는 말씀이다. 4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기에, 성도를 포함된다. 그러므로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보좌를 펴서 거하신다. 그날 강가의 에스겔의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로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살고 있었음을 말씀한다. 이 사실은 포로 중의 그들에게 실로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었다.

4생물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시분란하게 전진한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면 서로 충돌하고 대립되고 말 것이다. 오직 그들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영의 지시대로 움

30) 보라. Duguid, I.M., *Ezekiel*, 74. 그리고 Pratt, R.L (ed.), *Spirit of Reformation Study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2003, 1309.

직여야만 했고 광속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4생물이 움직일 때 나는 소리는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소리라도 같았고 천군 천사를 호령하는 하나님의 큰 소리라도 같았다. 심지어 4생물이 멈추어 있을 때에도 그들 위의 보좌에서는 여전히 큰 음성이 계속 울려 퍼졌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성도의 삶의 원칙은 큰 물소리와 뇌성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할 것을 의미한다. 4생물은 두개의 날개로는 날고 2개의 날개로는 자신의 몸을 가렸다. 이것은 거룩하고 빛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경외감을 의미한다(참고, 사 6:2).

이 환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생물도, 4바퀴도 아니고, 보좌 위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빛으로 거하시는데 그 광채는 마치 비온 뒤에 나타나는 무지개와 같다. 이 무지개는 노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연상시킨다(창 9:16-17).³¹⁾ 노아 시대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에스겔 시대에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배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그러나 이 엄한 심판 중에서도 구원의 서광을 남겨 두신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다. 보좌 위의 영광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의 빛을 성도의 삶 속에 비추고 계신다. 겔 1:26의 '사람같은 모습의 형상' (o`moi, wma w`j ei=doj avnqrw.pou)은 구약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의 성육을 가리키기보다는, '인간의 모습을 하신 여호와'라는 개념을 소개한다.³²⁾

요한은 에스겔처럼 성령에 감동하여 예언을 한다(계 1:10-11; 겔 2:2; 3:12, 14, 24; 11:1; 43:5). 계 1장의 보좌에 앉으신 성부와 에스겔 1

31) 참고. Duguid, *Ezekiel*, 75. 그리고 Pratt, *Spirit of Reformation Study Bible*, 1309.

32) Van Groningen, *Messianic Revelation in the Old Testament*, 859.

장의 보좌 환상이 병행을 이룬다. 에스겔에게 있어서 세상 통치자가 남 유다를 패망시킨 바벨론 왕이 아니듯이, 요한에게 세상 왕은 성도를 핍박하는 로마 황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여호와와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엎드렸던 에스겔의 모습은(겔 1:28) 요한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엎드린 것에 상응한다(계 1:17). 언약에 신실한 통치자 여호와께서 세상 역사를 통치하는 권세를 새 언약의 증보자이요 거룩한 용사 이신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4. 요한계시록 1장과 다니엘서의 간본문성

4.1.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의 환상은 단 2장의 거대한 신상 환상과 내용에 있어 일치한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본다. 단 2장의 거대한 신상 환상을 본지 50년이 흐른 BC 556년경으로, 1차 포로 귀환이 20년 정도 남은 시점이다. 2절에 의하면,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분다(참고, 숙 6:5). 바람이 불어와서 열방을 상징하는 바다를 요동시킨다. 질서를 부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거역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라는 혼돈의 세력이 일어난다. 그러나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네 바람이 거센 물결을 일으키기에, 이 혼란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다니엘이 보니 바다에서 큰 짐승 네 마리가 나온다(3절): (1)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사자, 렘 50:44; 독수리, 겔 17:3), (2) 갈비 뼈 3개(페르시아 제국이 정복한 바벨론, 루디아, 애굽)를 들고 있는 곰, (3) 머리 넷(참고, 알렉산더 사후에 4 나라로 나누임)과 등에 새의 날개 넷을 가진 표범, (4) 철로 된 이빨, 늦

으로 된 발톱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큰 말을 가진 입과 열 뿔(열 왕)이 가진 마지막 짐승. 이 네 짐승은 바벨론(BC 603-539), 페르시아(BC 539-330), 그리스(BC 330-150), 로마 제국(BC 150-550)을 각각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17절).³³⁾ 바벨론의 중요한 공공장소 입구에는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 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독수리의 두 날개가 뿔혀 버리고, 사자는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받는다(4절).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단 4장의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 먹는 굴욕 후에 회복될 것을 상징한다. 5절은 메데-바사 중에서 몸 한편인 바사를 통해서 마구 삼켜버리는 강력한 힘을 가진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날 것을 상징한다. 6절의 표범은 그리스 제국인데,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은 표범처럼 신속하게 그라니쿠스 강 전투, 이수스 전투 그리고 아르벨라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그리스는 알렉산더 사후에 마게도니아, 트라케-소아시아, 셀루키드 왕조, 톨레미 왕조로 나누어지고 만다. 7절의 로마제국은 10뿔 즉 강력한 10왕으로 구성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한다. 그러나 10뿔 이외에 적그리스도와 같은 한 인물인 작은 뿔이 등장하여 교만하게 말한다(8절).

단 7장의 4짐승을 단 2장의 신상과 비교해 보면, 금으로 만든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사자, 은으로 만든 가슴과 팔은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곰, 동으로 만든 배와 허벅지는 그리스를 상징하는 표범, 그리고 철로 만든 종아리와 발은 로마를 상징하는 열 뿔 달린 짐승이다. 최근의 복음주의 안에서 네 번째 짐승을 그리스 제국으로 보면서, 작은 뿔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보는 이들이 있다.³⁴⁾ 다니엘은 네 마리

33) 참고. Pratt, *Spirit of Reformation Study Bible*, 1388. Van Groningen, *Messianic Revelation in the Old Testament*, 935.

34) 참고. Longman III, T., *Daniel.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99, 189.

짐승 환상에 이어서 9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보좌 환상'을 본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시종드는 천사들이 매우 많다(11절). 흰 옷을 입은 신 성부께서 양털 같은 머리카락을 가지셨고, 그 분이 앉은 보좌는 불꽃이며, 보좌의 바퀴는 불이 붙은 것처럼 보이고, 심판을 위한 책이 펼쳐져 있다. 여기서 흰 옷과 양털 같은 머리카락의 흰색은 '정결' 보다는 '승리'를 상징하는 듯하다(참고, 단 12:10). 성부께서 승리한 심판 주로 좌정해 계신다. 불 바퀴가 달린 전차와 같은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비슷한 모습이 출애굽 시의 불기둥(출 13:21-22)과 꺾 1장의 보좌-전차 환상에 등장한다. 이것은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인생의 바퀴를 굴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정복의 권세를 강조한다. 죄악과 혼돈을 발생시키는 4짐승의 환상과는 달리, 보좌 환상에는 질서와 평정이 있다.

로마제국을 상징하는 네 번째 짐승이 죽임당하고 불에 던져진다(11절). 그리고 남은 모든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긴 채 살아있지만(하나님이) 정한(심판의) 시기를 기다린다(12절). 짐승이 죽고 권세를 박탈당한 것은 다름 아니라,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환상의 메시지는 포로 생활을 한 지 50년이 지난 시점에 소망의 등불이 서서히 꺼져 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쳐 준다. 이스라엘은 포로 중에 있으면서 포로 귀환의 약속과 족장과 다윗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강대한 약속들이 과연 이대로 끝나버릴 것인가? 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살았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해 다니엘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라고 말한다.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보좌로 가서(ivdou. evpi. tw/n nefelw/n tou/ ouvranou/ w`j ui`o.j avnqrw,pou h;rceto)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다(13-14절). 성부의 권세가 인자에게

넘어간다.³⁵⁾ 인자는 보좌 위의 하나님의 거룩과 승리를 견딜 수 있는 분이다. 세상에 혼돈을 일으키고, 삼키고, 파괴하는 사자, 꿈, 표범, 10뿔 달린 짐승으로 나타난 세상 나라와는 달리, 인자이신 예수님이 성부로부터 열방을 통치하시고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받으신다. 복음서에서 81회에 걸쳐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섬기고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인자 예수님은 구주, 왕, 통치자이시다(참고, 마 26:64-65).

15절 이하에서 다니엘이 넷째 짐승과 관련된 환상의 뜻을 배운다. 로마제국을 상징하는 네 번째 짐승의 '작은 뿔'이(하나님이 세우신) 때와 법을 변경시키고 성도를 박해하는 데, 그 기간은 한 때 두 때 반 때 즉 짧은 기간을 상징하는 3년 반 동안이다(25절).³⁶⁾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변질시키는 것은 스스로 신격화하는 작업과 관련 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주목하는 마지막 네 번째 짐승에게 있는 왕을 상징하는 10뿔 이외의 다른 '작은 뿔' (mikro.n evn toi/j ke,rasin auvtou/)은 무엇인가?(8절; 참고, 계 17:7). 10뿔 중의 일부인 3뿔(세 왕; 실제 3이 아니라 '소수'를 상징함)이 작은 뿔(왕) 앞에서 빠졌다(20절). 작은 뿔은 네 번째 짐승이 가리키는 로마 제국의 이전 왕들을 물리친 역시 로마 제국의 왕-황제이다(24절). 그 작지만 강한 뿔에는

35) 참고, 이성훈, "다니엘 7장", 「두란노 HOW 주석 구약시리즈, 다니엘」, 서울: 두란노, 2003, 176. 그리고 Van Groningen, *Messianic Revelation in the Old Testament*, 936. 하지만 Jordan은 옛적부터 계신 분을 '성육신 전의 그리스도'로, 인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다. Jordan이 이렇게 보는 증거 구절인 요 1:18은 "일찍이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였으니,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 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니엘이 보았던 보좌 위에 계신 옛적부터 계신이의 모습이(단 7:9) 그 누구도 보지 못할 성부의 실제적인 모습에 관한 묘사로 보기 힘들며, 단지 성부의 사역과 특성을 상징으로 그리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성부를 보았지 성육신의 성자를 본 것은 아니다. 보라, Jordan, J.B., *The Handwriting on the Wall: a Commentary on the Book of Daniel*, Georgia: American Vision, 2007, 334.

36) Pratt, *Spirit of Reformation Study Bible*, 1391.

사람의 눈과 같은 눈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입이 있다(8, 20절). 그러나 마지막 짐승은 권세를 빼앗기고 만다(26절). 작은 뿔은 막연히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기보다는,³⁷⁾ Pax Romana를 꿈꾸고 짧은 기간이지만 스스로 신격화하면서 무자비하게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네로와 같은 인물로 볼 수 있다.³⁸⁾ 이 악한 통치자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패배하여 죽는 것처럼 보였다(21절). 네로의 경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AD 68년에 자살하고 말았다. 결국 성도가 신원을 받아서 나라를 상속한다(22절). 그리스도와 성도가 서로 연합되어 영원한 나라를 누린다(18절).

다니엘은 국무총리요 바벨론 박사들의 어른으로 섬긴 사람이다. 자신의 입신양명만 생각했다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은 바벨론도 독수리의 날개달린 사자처럼 일시적으로 강력하지만 페르시아에게 망할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 주셨다. 다니엘이 꿈꾸는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다.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이해한 것은 악이 현 질서에 깊이 침투해

37) 예. Miller, S.R., *Daniel.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4, 214. 그리고 Young, E.J., *Daniel. The Geneva Series of Commentaries*, London: Banner of Truth. 1974, 162

38) Jordan은 작은 뿔을 집합적인 상징으로 간주하면서, 이는 주요 통치자가 아니라 조연에 가깝다고 보고, '안티파네스'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하수인이었던 '헤롯 왕가'로 본다. 참고. Jordan, *The Handwriting on the Wall*, 328-329, 388. 하지만 우리는 이 작은 뿔을 헤롯 왕가로 본다면 넷째 짐승(로마 제국)의 뿔 셋(3황제들)이 헤롯에 의해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패배 당했다고 볼 수 없다(단 7:8). Ferguson이 지적했듯이, 다니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 주석가가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대답하려는 시도는 풍유로 빠질 수 있다(예를 들어, '10뿔', '3뿔', '작은 뿔'은 각각 어떤 역사적 인물이다). 보라. Ferguson, S.B., *Daniel. The Communicator's Commentary*, Waco: Word. 1988, 162. 하지만 현대 주석가가 고대 제국 안에서 여기에 적합한 왕적 인물이 있는지 역사적으로 고려해보는 것은 당연하다.

있기에, 오직 '인자'를 통한 새 창조만이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³⁹⁾

단 7장과 계 1장 사이의 간본문성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⁴⁰⁾ 보좌 위의 하나님(단 7:9; 계 1:4); 보좌 주위의 천상의 존재들(단 7:10; 계 1:4); 인자의 주권(단 7:13-14; 계 1:5); 성도와 하나님 나라(단 7:18, 22, 27; 계 1:6, 9);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단 7:13; 계 1:7); 심판과 관련된 책 이미지(단 7:10; 계 1:11); 천상의 존재에 대한 묘사(단 7:9-10; 계 1:12-16). 요한은 계 1장에서 단 7장을 설명하기보다는, 단 7장의 사상, 암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은 계 1:7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와 단 7:13 사이의 간본문성이다. 이 구절들은 흔히 오해하듯이 예수님의 재림 시에 구름타고 강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영원한 권세를 성부로부터 받으신 예수님께서 승귀하시는 모습으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심으로 통치를 시행하시는 모습이다. 계 1:7의 그리스도의 오심은 물론 계 2-3장의 '조건적인 오심들'(conditional comings; 2:5, 16, 25; 3:3, 11, 20)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 '진행 중인 사건들'(process happening)로 이해해야 한다. 단 7:13절이 종말에 시행될 '인자'의 우주적인 통치를 예언했다면, 요한은 계 1:6에서 '신약 교회'가 인자와 더불어 현재적으로 왕 노릇한다는 실현된 종말론을 언급한다. 요한이 경험한 바로는, 천국의 권세를 현재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예수님 안에서'(evn Vhsou/) 환난과 인내에 동참하는 길이다(계 1:9). 다니엘이 미래의 일로 예언한 것을 요한은

39) Dumbrell, *The End of the Beginning*, 205.

40) 참고. Du Rand, *Die A-Z van Openbaring*, 138.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실체로 이해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신약 교회 완결적으로 이해한다. 그리스도 완결적 이해와 교회 완결적 이해가 불가분한 것은 '집합적 대표' (corporate representation) 원리 때문이다.⁴¹⁾

4.2. 다니엘 10장

다니엘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알리는 하나님의 천사를 단 10:1-21에서 본다. 다니엘은 고레스 3년(BC 537)에 큰 전쟁에 관한 말씀과 환상을 깨닫는다(1절). 이때는 바벨론 포로에서 가나안 땅으로 1차 귀환이 이루어진 직후이다(참고, 스 1:1-4). 다니엘은 3주 동안 슬퍼한다(2절). 다니엘이 슬퍼한 이유는 1차 포로 귀환 후에도 예루살렘에서 고생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금지하는 칙령을 내렸다. 혹은 1차 귀환에 동참한 사람들의 숫자가 적었고, 아직도 많은 이들이 유월절 무렵을 보내고 있지만(4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를 부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3주가 차기 까지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3절). 다니엘은 왜 1차 귀환 시에 동참하지 않았을까? 여행하기에 너무 늙어서 그런가? 아마도 예루살렘에는 스투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일군이 있기에,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로 후원하도록 하셨을 것이다.

다니엘이 정월 이십사일에 티그리스강가에 있었는데(4절), 한 사

41) 보라. Beale, *John's Use of the Old Testament in Revelation*, 156-157.

람이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 띠를 두르고 있었다(5절). 정월 이십사일이기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보낸 후이다. 이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이름 모를 천사' 인가? 아니면 '가브리엘' 인가?⁴²⁾ 그러나 다니엘이 천사장 가브리엘을 만나서 큰 두려움을 경험하지는 않았다(단 8:16; 9:21). 혹은 단 10:5와 겔 9:2의 간본문성에 기초하여 이를 '구약의 그리스도의 현현' 으로 보는 이도 있다.⁴³⁾ 만약 이것이 옳다면 계 1:12-16의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함에 주목해야 한다(참고, 겔 1:26-28).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처럼 빛났고, 눈은 햇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나는 듯 같고, 말은 많은 군중의 소리처럼 컸다(6절). 이 사자의 모습은 강력한 왕적 제사장의 모습이다. 다니엘만 이 환상을 보았고, 함께 있던 사람들은 보지 못했고 두려워하면서 몸을 숨겼다(7절).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 힘이 빠졌고, 아름다움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었다(8절). 다니엘이 그 사자의 말을 들을 때 기절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졌다(9절).

한 손을 떨고 있는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무릎과 손을 일으키며 말한다(10절): "사랑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하는 말에 주의하고, 네 자리에서 일어나라. 내가 네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다"(11절). 다니엘이 깨달으려고 주님 앞에 겸비하기로 작심한 날부터 응답되었다(12절). 아마도 다니엘은 단 9장의 70이레에 관해 기도하면서 더 자세히 알기를 원했을 것이다. 혹은 페르시아와 그리스 시대에 하나님의

42) Miller, *Daniel*, 282.

43) 보라. Longman, *Daniel*, 248. Young, *Daniel*, 225. 그리고 Van Groningen, *Messianic Revelation in the Old Testament*, 970. 이 하나님의 사자를 '그리스도' 로 본다면 단 10:13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즉 페르시아 제국의 사령관(사탄의 악한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을 21일 동안 가로 막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사역의 시기와 방법을 존중해야 한다.

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갈지 혹은 메시아 왕국은 어떤 모습일지 더 알기 원했을 것이고, 이 이유로 기도했을 것이다. 다니엘이 받은 환상과 계시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이었다. 페르시아의 사령관(즉 사단의 사주를 받는 악한 세력)이 21일 동안 이 사자를 가로막았기에(참고. 2절), 사자는 페르시아 왕 곁에 남아 있었는데, 가장 높은 사령관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었다(13절; 유 9; 계 12:7-9). 천상의 영역에서 일어난 영적인 전쟁은 결국 땅에도 영향을 미친다(참고. 엡 6:12). 이 사자는 마지막 날들에 이스라엘에게 닥칠 일을 다니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왔다. 이 환상은 다니엘 때로부터 먼 훗날에 관한 것이다(14절). 이 말을 들을 때 다니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15절). 인자의 형상을 한 이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지자, 입을 열어 말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니엘이 그 사자에게 말한다: “내 주여, 그 환상으로 인하여 고통이 나를 덮쳤으므로, 더 이상 지탱할 힘이 내게 없습니다. 어떻게 주의 종과 더불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력이 쇠하여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16-17절).

그러자 그 사자가 다시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힘을 주었다(18절): “사랑받은 사람아,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다니엘은 “내 주여, 주께서 제게 힘을 주셨으니 말씀하십시오” 라고 답한다(19절). 하나님의 사자는 페르시아 군주(그는 우주적인 영역을 포괄하는 전쟁이 암시되어 있기에 페르시아를 돕는 악한 영적인 세력이지, 칼변의 견해 즉 ‘캄비세스’로 보기 어려움)와⁴⁵⁾ 싸울 것인데, 사자가 나간 다음에 헬라의 사령관(악한 영적인 세력)이 올 것이다(20절).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페르시아와 그리스에 의해 지배를 받으나,

44) Calvin, J., *Daniel*(성서교재사 옮김, 「존 칼빈 원저 성경주석. 다니엘」, 서울: 성서교재사, 1993), 258.

이 지배는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일어나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우위를 차지한다. 이 사자는 진리의 책(하나님의 지식과 역사를 통치함에 대한 은유)에 기록된 것을 다니엘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 사자를 도와 그들을 대적할 자는 사령관 미가엘 밖에 없다(21절; 참고. 계 12:7). 단 11:1은 하나님의 사자가 메데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다리오를 강하게 했다고 밝히는데, 이것은 다리오의 포로귀환 칙령과 관련된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몇 가지 난점에도 불구하고 단 10:5 이하의 사자를 그리스도로 본다면, 다니엘이 이 사자를 본 후 었드러진 것은 요한이 예수님을 본 후 었드린 것과 유사하다(계 1:16). 간본문성의 관점에서 볼 때, 다니엘과 요한 사이의 모형론적 유비도 흥미롭다. 다니엘은 1차 출바벨론 직후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동족의 고난으로 인해 근심한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출애굽을 한 형제의 환난에 동참한다(계 1:9). 페르시아와 그리스 시대의 이스라엘은 식민지 상태에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마찬가지로 요한은 소아시아 교회가 당하는 박해는 하나님의 섭리 하에 일어남을 믿고 있었다(계 1:4, 8). 그리고 다니엘과 요한의 공통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환상으로 본 하늘에서 일어난 일은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을 결정지은 것이었다.⁴⁵⁾ 요한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부활-승천으로 인해 사단이 파멸되고, 신약 교회의 승리는 보장된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후사

45) 다니엘과 예수님 사이의 유비론에 주목해 보자: 다니엘이 왕적 직무에 동참하면서 동시에 선지자로 활동한 것은 메시아의 3직을 수행하신 예수님과 관련되고, 다니엘이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일하며 유혹을 받으며(단 1:8; 6:10), 그의 동료들의 적대감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단 6:4), 죽음의 자리에 까지 내몰렸다가(단 6:16), 높아진 것도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림자로 볼 수 있다. 보라. Van Groningen, *Messianic Revelation in the Old Testament*, 911.

를 섬기도록 보냄 받은 천사의 역할은 계시록에서 종종 천사로 묘사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대체된다(계 10:9; 12:7; 18:1).

나오면서

계시록 해석의 열쇠를 종교사학과처럼 이방 신화나 신비 종교에서 찾을 수 없다. 오히려 구약에서 찾아야 한다. 요한은 계시록의 서두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완결적 사역의 관점에서 구약을 바라보면서(부분적)과거론적 해석을 지향한다. '그리스도 완결적 해석'은 실체를 출발점으로 삼아(구약과 신약의) 그림자를 분석하는 것이다. 사도들이 이렇게 구약을 그리스도 완결적으로 해석한 흔적이 신약에 많다(예. 호 11:1-마 2:15; 사 49:8-고후 6:2; 창 12:7; 13:15; 24:7-갈 3:16, 29; 사 59:20-롬 11:26-27; 시 95:9-10-히 3:7-11). 계시록과 신약 전체의 그리스도 완결적 주석의 두드러진 특징은 유대인 중심의 특정주의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보편적인 우주적 교회로 발전하는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인데, 그 결과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신약 교회를 구원하시러 대적들을 심판하신다는 점이다.

구약이 그리스도 완결적으로 해석되었다면, 동일하게 신구약 중첩기를 배경으로 하는 대부분의 신약 성경도 그리스도 완결적 해석을 요청한다. 신구약 중첩기에 살았던 사도들이 했던 구약의 그리스도 완결적 해석의 원칙을 현대의 우리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구약은 물론 신구약 중첩기의 신약 성경을 그리스도 완결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시대

는 신구약 중첩기가 아니라 온전한 신약의 시대이며,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몸의 부활, 영원한 심판 등) 이외에는 남아 있는 구속 사건이 없기에, 그리스도의 완결된 구속 사역의 은덕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미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구약 그림자는 물론 신구약 중첩기의 원칙을 붙잡고 살 수 없다. 그리스도 중심적이건, 그리스도 완결적이건, 일단 주석된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도 중요한 원칙이 있다. 구약과 신구약의 중첩기에 주로 '사역적 성령' 즉 성령께서 구속사건에 필요한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일군을 감동하신 것이라면, 우리 시대에는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가 임하여 있다. 이 이유로 예수님과 관련하여 도달한 석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요, 군사 된 우리가 성령으로 온전히 행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 적용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통전적으로 섬기는 것이다.

계 1장과 단 7장과 10장 그리고 겔 1장 사이의 연속성이 강하다. 그 중심에는 연결고리이신 그리스도가 계신다. 세 선지자의 간본문적 대화중에서 불연속성 혹은 변형이 발생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발생한 구속사의 '확대-상승'으로 인한 것이다. 이것은 요한이 견지한 '그리스도 완결적 해석'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의 완결된 구원의 은덕을 입은 요한의 1차 독자들과 신약의 전체 교회의 유익으로 나타난다. ■

참고문헌

- Argall, R.A., *1 Enoch and Sirach: a Comparative Literary and Conceptual Analysis of the Themes of Revelation, Creation and Judgment*, Atlanta: Scholars Press. 1995.
- Beale, G.K., *John's Use of the Old Testament in Revelation*,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 Beale, G.K. & McDonough, S.M., "Revelation", Beale, G.K. & Carson, D.A., ed,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7 (1081-1161).
- Calvin, J., *Daniel* (성서교제사 옮김, 「존 칼빈 원저 성경주석. 다니엘」, 서울: 성서교제사, 1993)
- Chilton, D., *The Days of Vengeance: an Exposi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Tyler: Dominion Press. 1990.
- DeCock, P.B., The Symbol of Blood in the Apocalypse of John, *Neotestamentica* 38(2), 2004 (157-182).
- Duguid, I.M., Ezekiel.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윤명훈, 임미영 옮김, 「에스겔. NIV 적용주석」,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3).
- Dumbrell, W.J., *The End of the Beginning* (장세훈 옮김, 「새 언약과 창조」, 서울: CLC, 2003).
- Du Rand, J.A., *Die A-Z van Openbaring: 'n Allesomvattende Perspektief op die Boek Openbaring*, Vereeniging: CUM. 2007.
- Fekkes, J., *Isaiah and Prophetic Traditions in the Book of Revelation: Visionary Antecedents and Their Developmen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 Ferguson, S.B., *Daniel. The Communicator's Commentary*, Waco: Word. 1988.
- Hendriksen, W., *More Than Conquerors: an Interpreta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Grand Rapids: Baker. 1975.
- Jordan, J.B., *The Handwriting on the Wall: a Commentary on the Book of Daniel*, Georgia: American Vision. 2007.
- Kowalski, B., Martyrdom and Resurrection in the Revelation to John, *Andrews University Seminary Studies* 41(1), 2003 (55-64).
- Miller, S.R., *Daniel.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4.
- Longman III, T., Daniel.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99.
- Moyise, S., *Word Frequencies in the Book of Revelation*, Andrews University Seminary Studies, 43(2), 2005 (285-299).
- Pratt, R.L (ed.), *Spirit of Reformation Study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2003.
- Roloff, J., *The Revelation of John*, Minneapolis: Fortress. 1993.
- Song, Y.M., "Exodus Theme in the Book of Revelation 12-13", Paper read at SBL International Meeting, 2008. 7.
- Tavo, F., *Woman, Mother and Bride: an Exegetical Investigation into the "Ecclesial" Notions of the Apocalypse*, Leuven: Peeters. 2007.
- VanGemeren, W.A., *Interpreting the Prophetic Word* (김의원, 이명철 옮김, 「예언서 연구」, 서울: 엠마오, 1990).
- Van Groningen, G., *Messianic Revelation in the Old Testament* (유재원, 류호준 옮김, 「구약의 메시아사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 Vogelsang, J.M., *The Interpretation of Ezekiel in the Book of Revelation*, Ann Arbor: UMI. 1985.
- Willimon, W.H. & Lischer, R., *Concise Encyclopedia of Preaching* (이승진 옮김, 「설교학 사전」, 서울: CLC, 2003).
- Wilson, M., *Charts on the Book of Revelation*, Grand Rapids: Kregel. 2007.
- Woodman, S., *The Book of Revelation. SCM Core Text*, London: SCM Press. 2008.
- Young, E.J., *Daniel. The Geneva Series of Commentaries*, London: Banner of Truth. 1974.
- 유은결, "요한계시록의 황제제의: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을 중심으로", 「신약논단」15, 2008.
- 이광진, 「설교자를 위한 요한계시록 주석」, 서울: 크리스찬 헤럴드, 2004.
- 이달, "요한계시록의 점성학적 해석", 「신약논단」15, 2008.
- 이성훈, "다니엘 7장", 「두란노 HOW 주석 구약시리즈. 다니엘」, 서울: 두란노, 2003 (169-179).
- 홍창표, 「요한계시록 해설. 제 1권」, 서울: 크리스찬북, 1999.